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32과 역사의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천사로 표상된 무리에 대한 예언

[계14: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은 역사의 진행을 그의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 그 진행되는 상황을 따라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의 배려를 하셨다. 특히 역사의 종말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만 당하지 않도록 진행 사실을 자세히 계시하셨다. 그중에 역사의 종말에 특별한 기별을 전파할 무리에 대한 예언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이다. 이제 그 기별의 실상을 살펴 보도록 하자. 이것은 계시록 13장의 짐승들이 그 계획을 실천하려는 것과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시하신 것이다.

1. 계14:1에는 어떤 광경이 계시로 보였는가?

[계14:1] 또 내가 보니 어린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원래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언덕이다. 그것이 하늘 도성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된다. 여기 어린양이 서 있는 시온산은 하늘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말이다. 어찌면 하늘에 가서도 시온산이라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거기에 예수님과 144000인이 함께 서 있고 그들의 특징이 그 이마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정신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이다.

2. 십사만 사천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계14:2,3]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3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이 현재 있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 이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른다. 그것은 그들이 감당한 사명에 대한 노래이다. 일반적으로 이 노래를 그들의 경험의 노래라고 말한다. 우리 각자는 각각 경험한 생애의 노래가 있다. 다른 누가 그것을 부르겠는가. 이런 것은 각 개인마다 다 가지고 있는 노래이다. 그러나 144000인이 공통으로 부르는 그들만의 노래는 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한 노래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한 사명에 대한 노래인 줄 이해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이들 외에는 이들이 수행한 것과 같은 사명을 수행한 사람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그들 외에 부를 수가 없다.

3. 십사만 사천 인들은 누구인가?

[계7:4]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이다. 그 지파들은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잇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이다.

이스라엘 12 지파 중에서 여기 이름이 없는 지파가 에브라임, 단이 있다. 이 이름이 빠진 것을 두고 해석이 구구하다. 그러나 12이라는 수는 언제나 동일하다.

원래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그러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대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13지파가 되었다. 그래도 13지파라고 한 곳은 없다. 언제나 12지파이다. 이런 때는 레위가 빠진다. 왜냐하면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들은 12지파 안에 있었다. 그래서 누구 이름이 들어가고 빠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2지파라는 수가 중요하다. 12지파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000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인 맞은 자들인데, 그들은 특별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4. 십사만 사천 인들의 성품의 특성들은 어떠한가?

[14:4,5]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4000의 삶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자들이다. 그들의 언어생활이 정직하고 생활 전반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사상과 언어가 진리로 깨끗한 사람들이다. 사람의 언어는 그의 인격을 드러낸다. 144000의 언어는 오직 예수이다.

이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언어가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의 말을 통하여 그들이 사명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이 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미 말한 대로 이스라엘 12 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인을 맞았기 때문에 $12 \times 12000 = 144000$ 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수가 아니고 상징 수이다.

이것이 상징 수인 이유는 이스라엘 12 지파가 상징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인을 뿜 때는 이미 민족적 이스라엘은 12지파를 다 상실하고 난 후이다. 그들은 기원전 720년경에 북쪽 10 지파가 앗수르에 포로 되어 이방인과 섞이면서 그 지파가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남쪽의 두 지파는 바벨론에 포로 되었는데,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 되었던 지파들뿐이다. 그러므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은 정확한 12지파를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약1: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여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므로 12000이나 144000도 상징인 것이다. 같은 기사 중에서 하나는 상징이고 하나는 실제라는 해석은 바른 것일 수 없다.

성경에는 숫자에 상징성을 둔 경우가 많이 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숫자를 영적으로 풀이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게마트리아(Gematria)”라고 한다. 히브리 글자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글자가 가진 수와 동등한 값을 가진 숫자를 기초로 하여 경전을 해석하는 유대인의 해석 방법을 뜻하는 말이다. 기독교도 이 사상을 원용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숫자는 영적 상징성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사상에 의하여 3은 聖數, 4는 세상 수, 7은 완전수, 12는 선택수라고 풀이한다. 7은 3+4의 형태이고 12는 3x4의 형태이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할 때 12지파 12 사도는 다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된 것을 볼 수 있다. [요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곧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종말에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임을 이해하게 된다. 또 이들은 완성을 나타낸다.

[히11:39,40]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40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44000의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그 목적을 완성한다. 그래서 완성된 상태를 표상하는 수형(數型)이기도 하다.

그래서 계시록에 완성과 완전을 나타내는 수형이 모두 144의 형태를 이룬다.

새 예루살렘 12000스타디온x12000 스타디온, 생명과실 12종류x12달, 새 예루살렘 기초석에 12제자x12 대문의 12지파, 새 예루살렘 성 두께 144규빗 등을 들 수 있다.

144000인은 역사의 종말에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택함을 입어서 복음 사업을 완성할 사명을 수행할 무리들이며, 그들이 증거를 통하여 모든 것이 완전히 완성될 것이다.

6. 십사만 사천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보여졌는가?

[계14: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바로 144000인이 전할 사명이다. 이들은 이 기별을 깨닫고 정직한 입술과 흠 없는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 이들이 증거하는 기별을 듣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성립될 것이며, 그들이 144000인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임을 보여준 것이 1-5까지의 내용이다.

계시록은 승리의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뒤에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면 14장의 구조도 이해하게 된다.

7. 계14:6-13의 내용은 천사들의 기별인데 차례대로 살펴보자.

첫째 천사의 기별

[계14:6,7]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인데,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만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이다. 이 기별은 매우 중요하다.

심판하실 때가 언제인가?

[행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단8:13,14]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 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성소가 정결하여지는 때가 2300주야 끝이다. 이때가 심판을 시작할 때이다. 그것은 단9장을 이해하면 알게 되는 연대인데 그 끝이 1844년에 해당된다. 그때에 심판이 시작되었다.

심판과 창조주 경배는 필연적인 관계를 가진다. 심판은 창조주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창조주가 창조해 준 그 존재를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창조주가 창조해 준 자기의 존재와 생명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없어진다.

[시9:16,17]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엮혔도다 17 악인이 음부로 돌아감이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 자신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새 번역에는 다음과 같다.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악인들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나라들이 갈 곳도 그 곳뿐이다.]

심판과 창조주의 관계가 기록된 곳이 몇 곳 있다.

[계3: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라오디게아”는 “심판 받은 백성”이라는 뜻이다. 이 교회와 창조의 근본이신 이와 관련이 있다.

[벧전4:17-19]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18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이다.

조물주라는 말은 창조주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심판하실 때가 되었으니 창조주께 자기를 맡기라는 말씀이다.

창조주를 인정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를 반납하게 되고 영원히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다.

둘째 천사의 기별

[계14:8]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은 음녀인데(계17:1-5) 혼잡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이다. 그들이 세상에 먹이는 진노의 포도주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거짓 교리들이다. 불의로 진리를 막은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인데, 바벨론이야말로 불의로 진리를 막

는 일을 한다. 그는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짓밟았기 때문이다.

[롬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불의를 따르며 진리를 거스른 사람들과 그들에게 불의를 따르도록 만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

[계14:9-12] 또 다른 천사 곧 세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을 받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며 쉼이 없다는 기별을 전한다. 쉼이 없다는 말은 안식일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짐승의 표가 날짜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공부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쉼이 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다. 이것은 핍박의 때에 순교한 사람들에게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종말에 일상생활에서 예수 안에 자아가 날마다 죽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예수 안에서 자아가 죽을 때 쉼이 있는 것이다. 쉼은 종신할 때 있기 때문이다.

[창3: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수고는 종신할 때 끝나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수고가 끝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아가 죽을 때 수고가 끝나고 쉼이 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예수께 오면 쉼을 얻는다고 하신 것이다.

[마11:28-3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보증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기별이며, 이 기별을 거절하면 쉼이 없고,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결과를 전하는 것이다.

8. 이 천사들의 기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계14:14-20]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

식이 다 익었음으로다 하니 16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낮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7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낮을 가졌더라 18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낮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려 가로되 네 이한 낮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 천사가 낮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20 성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일천 육백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세 천사의 기별 후에는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이 거두어 들어지고 악인의 형벌이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14-20에 있는 말씀이다. 즉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는데, 창조주 경배하는 것을 거절하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마침내 영원한 상실을 당할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계시하신 것이다.

곡식은 하늘 곡간에 거두어들어지는 성도들을 표상한다. 우리는 곡식이 되어야 하고 알곡이 되어야 한다. 성도로 산다고 한 사람들 중에 하늘 곡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쪽정이고, 하나는 가라지이다.

[마3: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13:39,40]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우리들은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순복하여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알곡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증거하는 말과 생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144000인의 사명이다. 그것은 남은 자손들의 사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은 세상 역사의 종말에 증거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다. 이 기별을 증거하는 무리가 재림교회이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